

2023년 9월

월간 KOCHAM

KOCHAM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월간 KOCHAM 정보

발행처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발행인 김승주 회장

편집인 KOCHAM 사무국

발행일 2023년 9월 4일

홈페이지 kochambr.com

이메일 info@kochambr.com

주소 Alameda Santos 700, Andar 8, Cerqueira Cesar, São Paulo, SP,
CEP: 01418-100

목차

1. 코참 활동
2. 회원사 탐방
3.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패션쇼 및 세미나 개최

한국 문화의 날 후원 및 참석
회원사 탐방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제30회 패션쇼 및 세미나 개최 (8/18)



코참은 브라질 의류협회(ABIV)와 공동으로 18일(금) KSQUARE에서 총영사관을 비롯한 공관 및 주요 한인단체, ABIV 회원사와 패션 관련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제30회 패션쇼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된 패션쇼는 황인상 총영사를 비롯해 8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코참의 YouTube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김승주 코참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코참이 준비해온 패션세미나가 올해로 30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한인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ABIV와 공동으로 패션쇼를 겸해 준비했으며, 향후에도 동포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 ABIV회장을 대신해 김범진 이사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황인상 총영사 및 권명호 한인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패션세미나는 한인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기념하고, 한인 의류업체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세미나에서 벗어나 패션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8개의 업체에서 총 40개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2024년 여름 패션 트렌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패션쇼 및 세미나는 재외동포청 및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브라질 한인회 및 KSQUARE 등이 후원하였다.

코참 활동

패션쇼 및 세미나 개최

한국 문화의 날 후원 및 참석
회원사 탐방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제30회 패션쇼 및 세미나 개최 (8/18)



코참 활동

패션쇼 및 패션세미나 개최
한국 문화의 날 후원 및 참석
회원사 탐방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한국 문화의 날 후원 및 참석 (8/19)



코참의 김승주 회장과 김수한 부회장은 19일(토) 오후 1시 봉혜씨로 찌라덴치스 지하철역 앞 광장에서 브라질한인회가 주관하고 총영사관, 문화원과 현대자동차가 주요 후원한 제16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코참은 문화의 날 행사에 동참하는 의미로 VIP용 선물로 머그컵 100개를 한인회에 후원하였으며, 권명호 한인회장은 행사 준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코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김승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한인회는 전날 18일(금)에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전야제 성격으로 이루어진 코참 주관 패션쇼 행사에 후원 단체로 참여한 바 있다.

코참 회원사인 현대자동차는 메인 후원사로서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개최식에는 현대자동차의 히카르도 아우구스토 브라질 법인 경영총괄 부사장도 참석하였다. 히카르도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매우 인상적이며,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한국 공관 및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회원사 탐방

PROBRAZIL 김수한 대표



1. 회사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PROBRAZIL MEDIA는 2013년에 한류 콘텐츠를 브라질에 전파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남미 전역을 취재하며 다니다 보니 한국 콘텐츠의 인기를 절감하고 사업적 미래가 보였습니다. 먼저 K-Wave라는 한류 매거진을 창립한 이후 티비,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수입하여 브라질에 배급하였고 KBS 상파울루 지국이 철수한 2020년 이후에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한국으로 송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REDE TV와 함께 K-Dorama 시간대를 만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공중파에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 브라질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브라질 진출 기업은 누구나 겪는 문제로 중국 못지않은 "판시"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방송계, 문화계는 더욱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 사업 방향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증명되었는데도 정작 사업화에는 주저하고 기존의 체제로 진행하는 현지 파트너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현지 파트너사들에 앞서 움직여야 하다 보니 콘텐츠와 더빙 등에 선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투자금도 회수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되었고 파트너 방송사들의 신뢰와 함께 사업하고 있습니다.



3. 올해 특별히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올해는 공중파와 케이블 티비, 스트리밍 티비에 모두 저희가 수입한 한류 콘텐츠를 런칭하였습니다. 공중파는 REDE TV, OTT는 BAND PLAY, 케이블채널에는 PLAY TV에 한류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인 한류 드라마 방영과 함께 K-Pop 프로그램 등 예능 프로그램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저작권 획득 이후에 현지 제작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국과 프로덕션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머지않아 현지 제작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인이민 60주년을 맞아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4. 코참에 대한 기대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코참 회원사의 약진이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회원사간의 우의를 다지고 역량을 집중하여 회원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참 활동
회원사 탐방
공관 및 교민 소식
한국 문화의 날 개최
광복절 경축식 개최
헬로파크, '코리아데이' 개최

공관 및 교민 소식

제16회 한국 문화의 날 개최



제16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지난 19일~20일 양일간 한인타운 봉혜찌로 소재 짜라덴찌스 지하철역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한인어머니합창단, 한국전통무용연구소, 브라질 태권도시범단, 한울림 사물놀이, 한울림 색소폰팀 등 한인단체의 공연과 Jojo Yang(비트박스), 강인(팝), 강태규(트롯), 월드뮤직밴드 도시 등의 아티스트 공연이 있었고, 문화원 주최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도 진행되었다.

행사는 8만명이 넘는 인파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출처: 좋은아침)

코참 활동
회원사 탐방
공관 및 교민 소식
한국 문화의 날 개최
광복절 경축식 개최
헬로파크, '코리아데이' 개최

공관 및 교민 소식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한인회는 총영사관과 함께 15일(화) 오전, 봉혜찌로 KSQUARE 루프탑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하였다.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소개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를 황인상 총영사가 대독하였으며, 권명호 한인회장은 한인회와 한인사회의 역할과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념사를 전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한준관, 한은규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한명재 님의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경축식은 황인상 총영사, 권명호 한인회장을 포함한 주요 한인단체장 및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참석을 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한국형 키즈카페 '헬로파크', 16일 '코리아데이' 행사 개최



상파울루 유일 한국형 키즈카페인 '헬로파크Hello Park'가 한인어린이들을 위한 '코리아 데이'를 9월 16일(토) 오전 11시 15분에 개최한다.

헬로파크 측은 공원 방문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한복을 입은 안내원들을 배치하고 김밥 등 한국 간식 무료제공은 물론 한국어로 꾸며진 스크린을 통해 여러가지 놀이를 경험하게 할 계획이다.

입장료 구입 예매 사이트와 상세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s://ecommerce.helloparksp.com.br/>

- Shopping SP Market (Av. das Nações Unidas, 22540 - Jurubatuba, São Paulo - SP) (출처: 한인투데이)